

한국 자본주의 발전기, 노동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운동사5-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1961~1987』

류경순

저자의 연구방법과 문제의식

『한국노동운동사5-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1961~1987』(이원보, 지식마당, 2004)은 1961~1987년까지 노동운동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및 19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에 관련해서는 여러 논문과 책들이 있다.¹ 그러나 이 책은 시기별로 한국 자본주의 전개 과정, 정권과 자본의 노동정책, 노동자 상태 등을 통해 매 시기 노동운동이 처한 주·객관적 상황을 검토하면서 노동운동의 발전양상을 정리한 첫 출판물이라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61~1987년은 한국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된 시기이며, 정치적으로

1 기존에 출판된 책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1980년대 노동운동사를 다룬 『남한노동운동사1』(민중석, 들불, 1989),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한국민주노동자연합, 동녘, 1994), 『한국노동운동 20년 결산과 전망』(전태일기념사업회편, 세계, 1991) 등이 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다룬 『19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김장한, 조국, 1989), 『한국노동운동의 이념』(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정암사, 1989)과 1970년대 노동자투쟁 사례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1970년대 현장과 증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풀빛, 1984) 등이 있다. 그 외 다수의 석·박사논문이 있다.

는 군사독재가 지속되었고, 독재 권력이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 속에서 자본은 대외 종속과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일방적 통제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며 '고도성장'을 누린 황금시대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급격한 이윤을 통해 '수출역군', '공순이, 공돌이'로 불리며,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속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면서, 점차 노동자 계급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자본에 저항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연구 대상 기간인 1961~1987년 노동자 대투쟁 직전까지 약 26년간을 세 기간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시기 구분의 근거는 노동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조건의 변화와, 그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달라진 대응양식이다. 저자의 시기 구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기는 1961년부터 1969년까지의 기간(노동운동의 재출발기-한국노총체제의 출범),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민주노조운동의 형성),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부터 1987년 6월 말까지의 기간(노동운동의 폭발과 침체 그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부활)이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기 구분이다.

이 책은 각 시기마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객관적·주체적 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객관적 조건으로는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자본주의 발전단계와 자본 축적양식,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 등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노동정책, 노무관리형태 등 노동운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의 내용과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주체적 조건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구성변화, 노동시장 상황, 노동자 계급의 생활과 의식상태를 분석했으며, 노동운동의 대응은 노동자들의 조직, 이념, 투쟁 등 세 가지 측면을 기본 축으로 하여 정리했다. 조직에서는 조직물, 조직구조와 체계, 조직의 통일성 등을 주로 검토했으며, 이념은 노동운동 조직들의 선언, 강령, 운동기조와 같은 공식적인 것

이외에 정치적 경향을 포함하여 검토했다. 투쟁 측면에서는 단체교섭의 형태와 내용, 노동쟁의에서 나타나는 요구조건과 쟁의행위 양식,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방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노동운동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와, 사회발전에 있어 노동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노동조합주의'와 '혁명적 조합주의'로 나누어졌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저자 자신도 이러한 시각들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겠다면, 그 외 본인의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자는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급을 둘러싼 주체적·객관적 조건의 제약을 받는 동시에 그 제약을 극복하여 새로운 조건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성공과 실패, 도약과 침체를 거듭하면서 발전한다는 합법칙성을 지니게 된다고 했다.(19쪽)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을 추출하여 노동운동의 합법칙성을 규명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 시기 노동운동이 역사발전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다.(20쪽)

각 시기별 서술방식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주장된 의견들을 그대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저자의 판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투쟁 사례를 연도별로 나열하여 제시했기 때문에 각 시기별 노동자 투쟁의 역동성을 읽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각 시기의 중심 내용을 통해 저자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총, 노동조합운동인가 국가의 준노동통제기구인가

저자는 1960년대를 노동운동이 다시 출발한 시기로 보면서, 그 중심 활동을 '한국노총 체제의 출범'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국노총을 노동운동의 한

조류로 볼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60년 4월 혁명으로 급격히 고양되었던 노동운동이 단절되었던 기간(…) 노동조합은 해체상태이고 노동쟁의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군사정권은 자신들이 지명한 자들을 통해 하향식으로 노동조합을 재조직하게 했고, 그에 따라 국내 유일의 전국적 산업별 노조와 한국노총이 탄생했다. 비록 군사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조합 재편성을 통해 노동운동은 재출발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142쪽)

박정희 군사정권이 4·19 혁명기 대한노총을 부정하고 터져 나온 노동자의 저항, 특히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의 움직임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권에 의한 위로부터의 한국노총'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한국노총은 결성 배경과 태생에서부터 그 정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생의 한계는 한국노총의 정치행보에도 드러난다. 한국노총은 독재정권이 자신의 통치를 더 강화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국면마다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선언에 앞장서면서 노동자를 더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권력의 편에 섰다. 대표적인 예는 이 책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5·16 군사쿠데타 지지 선언, 1972년 유신체제 지지 선언, 1987년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한국노총이 행한 단위사업장 분열과 파괴의 사례, 대표적으로 동일방직 민주노조 파괴책동과 124명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자본가들에게 배포했던 사례 등을 통해서도 그 반노동자성을 엿볼 수 있다.

한국노총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과 지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저자는 한국노총이 내건 이념은 '반공주의, 국가우선주의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주의'라고 하면서, 노사화합적 노동조합주의의 허구성에 대

해서 비판하고 있다.(143쪽) 저자 자신도 한국노총에 대해서, ① 조직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자주성·민주성이 결여되어 있고, ② 노동조합이 표방한 이념과 운동기조는 반공주의와 노동조합주의, ③ 노조는 조직의 형식과 내용이 분리된 기형적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274~276쪽)

1960~70년대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노총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알 수 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노사관계가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았고 저항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노동조합의 옆과 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7년 강화도 심도직물사건에서 나타난 종교계의 움직임과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등이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다. 이는 한국노총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노총을 정점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은 권력에 의해 주어진 태생적 한계와 관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조합운동의 옆과 밑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했다.(277~278쪽) 또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이나 1980년 중반기 구로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전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들 민주노조들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 때문에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결성되었지만, 한국노총의 어용성과 반노동자성에 반대하며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자주성, 민주성'을 갖는 노조운동을 만들기 위해 독자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한국노총을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된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종교계의 관계

저자는 1970년대 노동운동을 두 시기, 즉 1970~1971년까지의 전반기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후반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앞의 시기에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많은 제약이 가해졌지만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가능했으며, 뒤의 시기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봉쇄되고 긴급조치가 전 국민

의 숨통을 막아 버린 암흑기간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의 양상이나 특징은 ① 한국노총과 산별노조, ② 폭발적인 비조직 노동자 저항투쟁, ③ 종교계 - 지식인 등의 노동운동지원과 그로 인한 노동운동 확산, ④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 등을 들고 있다.(357쪽) 이러한 특징 외에도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분신저항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 내용으로만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 서술의 문제는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조직, 투쟁, 지향에 대한 구체적 정리가 결여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1980년 3, 4, 5월 노동자투쟁과 1981~1982년 민주노조 시수투쟁은 1970년 내내 전개된 민주노조운동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투쟁인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1980년대 중반에 제기된, 경제주의 - 조합주의라는 평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 논리적 평가,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평가 등 세 가지 평가경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저자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계의 노동운동 지원과 참여 그리고 그 영향'을 빠뜨릴 수 없다. 저자는 종교계의 활동이 '한국 노총의 지도력의 공백을 외관단체들이 메우려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민주노조 지원활동은 종교적 양심에 근거를 두는 것이었으며, 투철한 계급적 입장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교회의 지원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주체적 자각과 대중의 투쟁 역량에 따라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기보다는 체제 내에서 차지하는 교회의 위신과 영향력에 의해 현장의 문제를 사회여문화하고, 정부와 기업 측에 압력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입장에 치우치게 했다. 또한 외부에 의존하는 경

향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유신체제의 집중적 탄압 속에서는 지원활동이 위축되고, 노동자들은 종교계를 기회주의로 인식하여 불신감과 정서적 이질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정리한다.(413~414쪽)

이러한 정리에는 종교계의 지원이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미친 이념 또는 지향에 미친 평가가 간과되어 있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에 대한 검토가 비어 있는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종교계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두 세력, JOC와 도시산업선교회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지원활동의 공통성과 차이, 그 영향 속에 노조활동에 드러나는 노조 내부의 갈등, 1980년대 초 원풍모방 노동자들이 도시산업선교회와 결별을 선언한 것과 그 의미에 대한 검토 역시 빠져 있다.

1980년대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의 의미

1980년대 노동운동에 대해 저자는 ① 1980년 초부터 5월 중순까지의 노동운동의 급격한 고양기, ② 1980년 6월 중순 이후부터 1983년 말까지의 노동운동이 극도로 침체하여 질식 상태에 빠진 시기, ③ 1984년부터 1987년 6월 말까지의 노동운동의 재기와 새로운 지형 구축 모색기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매 시기마다 노동자 투쟁, 조직 활동, 노동운동 노선논쟁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이 시기에서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변혁지향성을 모색하게 했던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광주민중항쟁의 주체가 민중인지 노동자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광주민중항쟁과 노동자의 역할, 그 평가와 영향에 대한 정리는 1980년대 노동운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1980~1983년 말까지를 '노동운동의 침체기'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외형적으로 대중투쟁과 노동운동 세력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1970년대 민주노조 활동가들의 사업장별 모임, 사업장 간 연대모임의 추진, 학생운동출신 활동가들의 현장이전을 통

한 '아래로부터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부각되지 않았다.

19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의 태동'에 있다고 본다. 이를 저지는 조직 활동과 이념논쟁, 노동자 투쟁의 성격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대중속에서의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모인 탓에 지식인 중심의 운동체가 되었고, 대부분 대중지도력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많은 서클들은 관념적인 '골방논쟁' 속에서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분과주의적 태도를 보였고, 서클에 속한 활동가들은 (...) 전략전술 논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론주의' 적 경향도 나타냈다 (...) 그러나 모든 그룹과 활동가들이 이런 경향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천적 과제를 중시하며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집단적이고 통일적 활동을 위한 체계를 세우고 대중조직 건설에 힘을 집중했다. 또한 활동가가 많은 경인지역에서는 서클의 역기능이 두드러졌던 반면, 지방에서는 그것이 별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733쪽)

동시에 저지는 19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이 198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의 질적인 전환과 고양을 위한 진통기 내지는 준비기였고, 그 실천적 모색은 노동운동의 현재적·잠재적 운동역량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역량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그 이후의 발전과정에서 발현되었다”(752쪽)라고 제기한다.

이는 저자가 같은 시기의 활동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전반기 운동이 어떤 측면에서 잠재적 운동역량을 발전시켰는지, 198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과는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 시대간 노동운동의 계승과 단절의 문제

저자는 26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역사를 정리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운동의 합법칙성을 밝히려겠다고 했다. 저자가 정리한 결론은 한국의 노동운동도 “1970년대에 축적된 노동자 계급의 잠재적 역량을 바탕으로 고양과 침체 그리고 도약이라는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나타낸 것”(747쪽)으로 압축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각 시대간의 관계는 “1970년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의 질적인 전환과 고양을 위한 진통기 내지는 준비기이며 (…) 이 시기의 실천적 모색은 노동운동의 현재적·잠재적 운동역량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역량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그 이후의 발전과정에서 발현되었다”(752쪽)라고 제기한다.

먼저 검토할 것은 노동운동이 성공과 실패, 도약과 침체를 거듭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를 노동운동의 합법칙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노동운동의 합법칙성이란 노동자 계급이 어떤 경로를 통해 스스로를 계급으로 의식하고 조직해 가면서 계급운동의 주체로 형성되는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노동자 계급의 주체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쟁과 조직의 관계, 투쟁과 의식의 관계,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관계 등의 문제를 한국 노동운동 역사의 특수한 전개과정에서 일반화시켜내는 것이 노동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각 시기별 노동운동의 계승과 단절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점이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1980년대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의 계승 혹은 단절의 문제 그리고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및 19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관계 문제는 현대 노동운동의 발전경로를 인식하는 핵심적 문제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실증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일정하게 선언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선언적 결론은 이 책의 구성의 특징과 맞물려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1961~1987년까지 긴 기간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방대한 기존의 자료를 통한 노동자 투쟁의 나열과 기존 연구 성과에서 제기된 평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각 시기의 평가를 대신하면서, 저자 자신이 갖는 각 시대별 노동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다. ■